

광주 사립고 유인물 문제 그대로 출제

학교 측, '변형 출제·1000문제 중 일부' 거짓 해명 최상위권 31명 가입 수학동아리만 사전 유출 의혹 저작권법·업무방해·손해배상 등 후폭풍 예상

광주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기말고사 시험지 유출 의혹과 관련, 특정 동아리반에 제공된 문제를 변형해서 출제했다는 학교 측 해명과 달리 사실상 변형없이 그대로 출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문제가 된 고난이도 5개 문항은 시험 한 달여 전에 기숙사생을 중심으로 한 수학동아리반에 사전 배포돼 특혜 논란과 함께 학교 측의 '거짓 해명'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고발과 소송 등 후폭풍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일 실시된 모 사립고 기말고사 수학 문제(기하와 벡터, 확률과 통계) 중 객관식 3문제, 서술형 2문제 등 5문제(총점수 26점)를 상위권 학생들로 구성된 특정 동아리에서 미리 풀어봤다는, 사전 유출 의혹과 관련해 사흘째 특별감사를 진행 중이다.

감사반은 이 과정에서 표표 공간에서 도형 사이의 상관관계를 묻는 문제 등 5개 문항이 질문 자체는 물론 제시한 조건, 숫자까지도 모두 똑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단, 한 문제만 주관식이냐, 객관식이냐 차이가 있을 뿐, 5문항 모두 "출제자의 의도 숫자, 보기, 순서까지 완벽하게 일치해 똑같은 문제"라는 게 감사반과 임시 전문가의 분석이다.

"응용되거나 변형된 문제"라는 학교 측 해명과 다른 대목이다.

또 문제의 5개 문항은 이미 전체 학생에게 공유된 자료고, 학기 초부터 제공된 문제은행 중 일부라는 학교 측 주장과 달리 감사 결과, 기말고사를 한 달여 앞둔 5월 중·하순에 두 차례에 걸쳐 수학동아리 학생들에게 배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배포된 유인물은 모두 3장이고, 문제가 된 수학문제는 이 3장에 모두 담겨 있었다.

해당 유인물은 교내 M수학동아리 소속 학생 31명에게만 제공된 것으로 파악됐다.

SNS에 불공정 의혹을 제기한 A군도 "기숙사 친구들이 휴일에 따로 수학수업은 받은 뒤 자습하고 있는데, 시험 출제자 선생님이 종이를 들고 오셔서 갑자기 나눠줬다"고 했다며 "우리반 기숙사 친구들은 어쩔 줄 몰라하며 '미안하다'고 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이 학교 교감은 "자연계 열 6개반 학생들은 다 볼 수 있는 자료였다"며 "3월부터 제공한 문제는 행 1000문항 중 5문항이 비슷하거나 변

형된 유형으로 시험에 출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흔히들 생각하는 시험지 유출이나 특정그룹 또는 학생을 위한 '예상문제 찍어주기'와는 상황이 다르

르고 이미 공개된 문제은행에서 무작위 출제된 것"이라고 유출 의혹을 거듭 부인한 바 있어 거짓 해명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문제가 된 5문항은 1, 2등급도 풀기 힘든 문제로, 실제 동아리반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백지로 답안지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고3 수학 이외에 다른 학년에서도 발생했는지, 다른 과목에서도 이같은 일이 있었는지 면밀히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또 "학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

뤄진 일인지, 일부 교사들의 일탈인지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 결과 특정 유명 인터넷 강사의 문제집에서 뽑아낸 일부 문항이 사전 유출됐고 실제 기말고사 문제로 그대로 출제됐을 경우 업무방해와 저작권법 위반 등 사법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비동아리, 비기숙사 학부모들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인호 기자



초복 앞둔 삼계탕 음식점

초복을 이틀 앞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계탕 음식점 앞에는 시민들이 길게 줄 지어 서 있다.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 직원 산재 취소 소송 취하해야”

여성단체, 광주시의회·전남도청·서울 남도학숙 동시 기자회견

광주·전남 지역 여성단체가 10일 남도학숙 내 여직원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운영 주체인 남도장학회에 행정 소송 취하를, 광주시·전남도에는 대책 수립을 각각 촉구했다.

남도학숙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 지지 광주 모임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남도학숙에서 발생한 성희롱을 인정하고, 남도장학회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남도학숙을 운영하는 남도장학회는 성희롱 피해를 호소하는 여직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오히려 성희롱 행위를 부정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한 2차 가해도 방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근로복지공단의 피해자에 대한 산업재해 판정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산재와 관련 없는 지난 10년간의 피해자의 병원 진료 내역 제출을 요구하는 등 인권을 계속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남도장학회는 성희롱 산재 관련 요양승인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당장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남도장학회의 공동이사장으로 감독 책임이 있는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5년간 홀로 싸워온 피해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면서 "공공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피해자의 직장복귀·일상회복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각 지역 연대 여성단체 주관으로, 전남도청과 서울 동작구 남도학숙 앞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지난 2014년 5월께 남도학숙 직원 상반기 야유회 자리에서 A 부장은 한

여직원에게 '상사들 옆에 앉아 술을 따라라'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하고, 이를 문제 삼자 폭언을 했다.

이후 해당 여직원은 A 부장과 남도장학회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1월 진행된 1심 재판에서는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2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5일 1심 판단을 뒤집고 A 부장과 남도장학회가 공동으로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남도학숙은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하는 광주·전남 지역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994년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설립, 운영하고 있다.

서은홍 기자

심야시간대 사찰서 현금 훔친 20대 구속

광주 서부경찰서는 10일 심야시간에 사찰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 주거침입절도)로 정모(25)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1시에 광주 서구 한 사찰에 침입, 현금 20만 원을 훔치는 등 지난달에만 같은 곳에서 7차례에 걸쳐 총 15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씨는 인적이 드문 심야시간대를 틈타, 공구를 이용해 사찰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정 씨는 최근 가출한 뒤 숙박업소를 전전하고 있으며, 생활비를 마련하기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 씨는 최근 절도와 성범죄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 씨가 평소 주변 숙박업소에서 지내며 사찰의 보안이 허술하다는 점을 눈여겨 보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설명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탐문 수사를 벌여 정 씨를 붙잡았다.

병원서 나와 산에 쓰러진 80대 치매노인 구조

경찰과 소방당국이 야간시간에 병원을 나와 산에 쓰러져 있던 치매 노인을 구조했다.

10일 광주 북부경찰서와 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8시57분 광주 북구 모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A(85)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실종수사팀, 타격대, 구조대원 등 20여 명을 투입해 병원 일대를 수색했다.

CCTV 녹화 영상을 분석한 경찰은 병원과 1~2km가량 떨어진 광주 삼각산으로 누군가 향한 것을 확인, 산 일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9일 오후 10시33분 산 입구와 200m 가량 떨어진 경사면에 쓰러져 있던 A씨를 발견, 응급 조치 뒤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9일 오후 6시20분 병원을 무단 이탈했으며, 생명에 지장 없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조인호 기자

편의점 절도 후 종업원 성폭행 시도 30대 구속

전주 덕진경찰서는 편의점 종업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 및 절도)로 A(32)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7일 오전 3시에 전주시 덕진구의 한 편의점에서 양주 2병을 훔쳐 나갔다가 5분 후 다시 들어와 계산대에 있던 종업원 B(22·여)씨를 편의점 창고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강력히 저항하자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편의점 내 외부 폐쇄회로(CCTV)를 분석을 통해 도주로를 파악, 여자친구 원룸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성폭행 등 성폭력 전과 5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서 10대 등 2명 유인폭행 일당 덜미

경기 수원에서 10대 2명을 유인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A(30)씨 등 5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전날 오후 11시45분께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터미널 앞 도로에서 B(19)씨 등 2명을 폭행하고 현금, 휴대전화, 명품신발 등 1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씨 일행에게 수원터미널 앞에서 만나자고 유인한 뒤 자신들이 렌트한 차량 2대로 막아 이들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 일행을 차에 태워 B씨의 집으로 이동해 폭행을 이어갔다.

지나가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 번호를 추적해 이날 오전 12시55분께 수원시 권선구 B씨 집 앞에서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현금이 필요해 B씨에게 미개통 휴대전화를 판매했던 A씨는 B씨가 휴대전화 비용 200만 원을 보내지 않고 "잘 쓰겠다"는 식으로 약물리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뉴시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